



한전 파리사무소를 다녀와서

도유봉
에너지관리공단 과장/전기기술사



▲ 김문철 소장과의 인터뷰 장면

필자는 이번에 전력수요관리(DSM)에 대한 세계화 기반 구축과 해외 자료수집 및 정보교류를 위해서 지난 '96년 4월 14일부터 27일까지 유럽 4개국(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독일)과 일본의 수요관리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첫 기착지인 프랑스 파리에서 OECD 본부를 방문하고 난 뒤,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라테팡스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파리사무소를 방문하였다. 거대한 프라마툼빌딩 35층에 자리잡은 사무실은 아담하게 꾸며져 있었고, 각종 자료들이 책장에 가지런히 잘 정돈되어 있었다. 소장 집무실로 들어가니 김문철 소장께서 반갑게 맞아 주셨다. 서로 상견례를 한 뒤 파리사무소의 일반현황과 업무활동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 도유봉 :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김소장께서는 파리 사무소에 언제 부임하셨습니다?

● 김문철 : '94년 1월에 부임하여 현재 2년4개월이 되었습

니다. 저와 파리사무소하고는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지난 '82년 9월부터 직원으로서 3년간 근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이 두 번째 근무가 되는 셈입니다.

▼ 도유봉 : 지난 번에 이곳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파리사무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직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김문철 : 현재 사무담당 부장(우중분) 1명, 기술담당 과장(반재하) 1명, 국제원자력기구(IAEA)파견 부장(서두석) 1명 등 총 4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밖에 보조업무를 위하여 1명의 현지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무소 파견인원은 공개선발하여 결정되며, 근무기간은 통상적으로 3년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국제적인 감각을 빨리 익힐 수 있도록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 2명씩을 계속해서 일정기간 OJT(현지적응훈련)를 시키고 있습니다.

▼ 도유봉 : 이곳 파리사무소는 유럽지역 해외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중요한 전진기지로 알고 있습니다. 파리사무소의 연혁과 사업목표, 주요 업무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 김문철 : 1982년 3월 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관리를 위한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것이 시초이며, 1988년 2월에 현지법령에 의한 사무소 법인등록을 함으로써 정식으로 파리사무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파리사무소의 사업목표로는 「일류화·세계화의 첨병(尖兵)」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워, 경영정보의 양질화, 정보자료의 D/B화, 예방품질·납기관리, 자기개발·선진인식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담당부서에서는 정보관리와 외자구매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경영관리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건설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요청하는 현지 정보 및 자료 이외에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들을 수집하며, 최근에는 지구환경 개선을 위한 수요관리(DSM) 등 새로운 분야에 관한 정보·자료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주요 기술협력사항으로는 ① 유럽형 원자로개발회사(NPI)와의 차세대 원자로개발 기술협력과, ② 프랑스전력공사(EDF)와의 원전주제어실 전산화설비 개선, 배전운영 신기술 훈련, 양양 양수발전소 기전분야 설계, ③ ALCATEL과의 제주-육지간 해저케이블 포설 등이 있습니다.

기술담당부서에서는 발전소 건설사업관리를 담당하며 이를 통하여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지역내 국내원전 기자재 제작 및 공급사로는 프랑스의 CEGELEC社/GEC Alsthom社/SEMT Pielstick社에서 울진 3, 4호기 및 월성 2, 3, 4호기 전기·제어설비 공급과, 영국의 WEIR PUMPS에서 펌프류 공급, 스위스의 ABB에서 발전용 차단기를 공급하고 있어, 제작과정에서 단계별로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즉, 경영기술 수준의 선진화와

발전설비의 경제적건설, 전력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저렴한 양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제와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도유봉 : 파리사무소의 주요 업무가 경영정보 수집, 기자재 품질관리, 기술협력기관 활용,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련업무라고 들었는데, '95년도 주요 사업의 성과 내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 김문철 : 우리 사무소의 '95년도 사업실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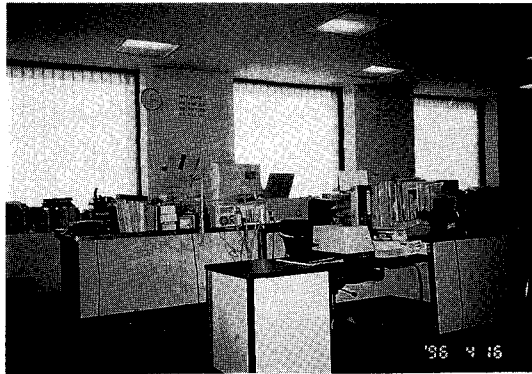
첫째, 경영정보 수집으로는 본사요청에 의한 일반정보 101건, 중점수집 정보로는 프랑스전력공사의 발전소 환경보호 수행실적, 유럽 및 프랑스의 공공기업 변화평가 및 전망 등 64건, 자체수집하여 가공한 속보 63건, 분석보고로는 통독후 독일의 전력사업 현황과 전망, 스위스의 원자력정책 및 국민홍보 등 9건, 원문정보 41건, 도합 278건으로서, 목표 대비 120%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둘째, 기자재 품질관리에서는 월성 2, 3, 4호기/울진 3, 4호기의 원자력발전 플랜트 부속설비로서, 선적출하가 838 품목, 품질검사 24회로 목표를 무난히 달성했습니다.

셋째, 기술협력기관 활용 실적으로는 프랑스전력공사(EDF) 20회, 영국 원자력공사(NE) 4회, 이태리전력공사(ENEL) 4회, 국제전기사업자협회(UNIPED) 4회, 프라마툼 공급발전소그룹(FROG) 5회, 유럽형 원자로개발회사(NPI) 4회 입니다.

넷째,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련업무로는 국제협력 연구사업 운영에 의한 경수로 노심관리·안전성향상 연구개발과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 및 추진에 따른 국제협력이 있으며, 기술정보 수집 및 IAEA 주관회의 옵서버로 참석하고, 한전/IAEA간 기술협력 및 중개역할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 도유봉 : 경영정보를 국내도 아니고 해외에서 수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전 파리사무소의 육내 전경

해외 사무소 탐방

다. '95년도에 경영정보 수집을 목표대비 120%의 실적을 올리셨는데, 아마도 남다른 노력이 있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영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 Know-how라고 할까요? 그 비결을 공개해 주실수 있는지요?

● 김문철 : 글쎄요, 비결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요즘은 세계화, 정보화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 국제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고 있으며, 더욱이 본사에서 요구하는 정보에 따라서는 국가 내지는 기업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어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무상으로 제공해 주던 정보를 요즘은 점차적으로 자료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어 정보화시대임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방적인 정보수집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Give and Take라고 해서 우리도 무엇인가를 주지 않으면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파리사무소에서는 「KEPCO in Brief」를 제작하여 유럽, 요르단, 이집트 등 50여개 관련기관에 매월 보내주고 있습니다.

▼ 도유봉 : 「KEPCO in Brief」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김문철 : 제가 '94년 5월 파리사무소에 부임하고 나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정보를 수집하는데 갈수록 어려움이 있고, 여러 기관을 접촉하다 보니까 자료를 모두 원하는대로 주지도 않을 뿐더러 자료공개 자체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지역이 한국을 잘알고 있는 실정도 아니어서, 한국 전력공사의 Profile과 관심사항에 대한 동향 등을 알려주기 위해서 '94년 말부터 매월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차순서는 I. Electric Power Supply II. Long-term Power Development Plan III. Highlights in this Month IV. General Information으로 하여, 주요 내용은 매월 전력생산과 소비관련자료 및 지표(전년 동기대비 등), 장단기 발전 소건설계획 및 건설현황, 발전원별 구성내용, 이달의 하이라이트로서 한전 임직원들의 국제협력(회의, 세미나, 교육 등) 관계, 고위급인사 방문, 양해각서, 주요계약 등 세계적인 관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매월 보내줌으로써 상대방도 고마움을 느끼고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군데서 감사장이 답지하고 있으며, 일제로 프라마툼 부사장도 앞으로

로 계속 보내달라고 하면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 도유봉 : 김소장의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96년도 사업추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김문철 : 올해의 사업은 해외사무소의 세계화에 걸맞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영정보 수집목표는 195건으로, 정보의 양질화(미래지향적이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발굴, 활용가치가 높은 정보수집), 정보수집 효율화 및 제공신속화(타이밍에 맞는 정보수집 및 신속가공 제공), 新 정보원(Sources) 적극개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품질관리 목표는 479건으로, 예방차원의 품질관리활동 강화(既발생문제점의 철저한 경험반영 등)와 적기 제작 독려에 의한 납기관리 강화(현장 소요일정과 제작공정의 주기적 비교검토, 설계 및 제작문제 발생시 A/E와 신속한 연계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협력기관 활용목표는 14건으로, 정기, 비정기적 상호정보 및 인사교류 추진,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돈독한 인간관계 유지, 유관 전력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요즘 국내의 지역이기주의(NIMBY)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유럽지역의 전력회사와 발전소 지역주민들과의 상호협력관계 및 지원제도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만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입수·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화와 급변하는 경영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경영합리화와 전력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파리사무소 직원 모두가 전력투구할 것입니다.

▼ 도유봉 : 각오가 대단하십니다. 모쪼록 전력분야의 세계화를 위한 '96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문철 : 저의 파리사무소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럽지역 해외사무소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무수히 많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선진기술을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는 사명감과, 세계화에 앞장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현지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신 한전 파리사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